

##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른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고 걱정을 한다. 사실은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성적에 매달리다 보면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책을 손에 쥘 여유가 없다. 사실 독서는 옛날부터 성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누구나 책읽기를 중요시했지만 입시 위주 교육과 주입식 지식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진출 방식이 성적표에만 의존하는 풍토로 바뀌어 인성교육 차원의 독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만 것이다.



**박 윤 주**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운영진  
bjj16203@hanmail.net

그런데 요즘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이 독서이력철이다, 논술이다 하여 책 읽기까지 성적관리에 첨가시키다 보니 독서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에게까지 파급되어 때 아닌 독서 열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독서와 관련된 행사와 평가를 고안하고 도서관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학교 밖에서는 '독서'란 용어가 결들여진 사설학원이 동네마다 간판을 걸고 새 영역의 상품으로 등장한 현실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던 책읽기가 권장되는 현상으로 바뀐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율적

학교에서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와 관련된 과제를 부과하거나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대회 등 독서관련 행사로  
독서의 생활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독서하는 과정의 중요성보다  
결과에만 치우쳐 그다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면서도 유익한 책읽기가 되도록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문화 조성에 필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청소년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첫째, 책을 읽으면 수많은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로 축적되어 그 사람의 생활 능력을 보강시키고 진취적으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다양한 독서는 사고의 폭을 넓혀 주고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셋째, 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서함양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 넷째, 책 속에서 얻은 감화와 깨달음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길잡이가 된다.

### 청소년의 책 읽는 현실은 어떤가?

우선 책 읽는 시간 확보가 안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수업과 그 외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방과후에도 학원이나 기타 과외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TV나 컴퓨터, 오락기기 등에도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제로 독서하는 시간은 아주 미미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학교에서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와 관련된 과제를 부과하거나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대회 등 독서관련 행사로 독서의 생활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독서하는 과정의 중요성보다 결과에만 치우쳐 그다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또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태다. 우선 도서

관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낮으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사서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이고,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서량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인 도서 안내 자료의 부재로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 선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발전적인 도서관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청소년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하는가?

청소년에게 권장하는 책은 일단 양서라야 하고, 고전이면 더욱 좋다고 한다. 대개는 학교마다 권장도서목록이 있어 학생에게 유인물로 매 학년 초에 배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목록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주는 목록의 책은 재미없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실 그 목록들을 훑어보면 대부분 학생들 수준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흔적이 별로 없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에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온 고전 목록이거나 시대적으로 현실감이 전혀 없는 작품들이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와서 새로운 감각으로 만들어진 목록들이 보이기 시작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 새로운 목록들에 들어가는 책의 조건은 이렇다.

첫째 재미가 있는가?, 둘째 쉬운가?, 셋째 교육적인가? 그리고 청소년이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을 책, 읽어야 할 책, 읽히고 싶은 책인가?

### 청소년을 위한 권장도서목록 작성시 고려할 점

세상에 좋은 책은 많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에게 좋은 책을 골라내기는 쉽지 않다. 청소년에게 적절한 좋은 책을 찾는 작업 역시 매우 어렵다. 즉, '양서(良書)' 이면서도 '적서(摘書)' 인 책을 찾기로 정말이지 쉽지 않다. 더구나 권장도서의 논의를 책 자체에만 국한시킨다면 목록 작업은 수월하다. 책 자체의 작품성과 완성도만 따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권장도서에 접근하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수히 많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가(접근성, 난이도의 문제), (2) 아이들의 정서나 문화에 잘 맞는 책인가(문화적 코드의 문제), (3) 학생들이 읽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가(언어 표현, 장면상의 문제), (4) 작가는 도덕적인 인간인가(작가의 삶과 가치관의 문제), (5) 어느 정도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가(책 자체의 작품성과 완성도의 문제), (6) 사회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책인가(사회문화적 가치의 문제), (7) 그밖에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했는가, 교육철학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교육과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교사는 어떤 의도로 책을 권해주는가, 외국 서적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했는가 등등이다.

### 맺는말

위에서 보았듯이 교사, 독자(학생 혹은 청소년), 책, 작가, 사회문화 등 독서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가 선정과정에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장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책을 권해주는 순간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기 마련이다. 선정자의 미묘한 관점 차이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끔은 선정 작업이 소모적인 논쟁이 될 때도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과의례라면 마땅히 풀어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현재 청소년들에게 권할 만한 선정 대상 도서 중 우리나라 작가의 도서는 매우 귀한 편이다. 이점은 참 많이 아쉽다. 이에 앞으로 출판계가 앞장서서 좋은 필자를 발굴하고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우리 책을 많이 출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다투어 책을 찾고, 찾는 책은 어디서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고, 출판되는 모든 책에 청소년에게 권할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명시되어 안내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